

빈센트 반 고흐·에곤 실레·폴 고갱·안토니오 로페즈...

하정웅미술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상영

3~10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2시... 영화평론가 강연도

빈센트 반 고흐, 에곤 실레, 폴 고갱, 안토니오 로페즈 등 대중에게 친숙한 예술가의 삶과 예술혼을 담은 영화를 하정웅미술관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프로그램을 3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관 2층에서 상영한다.

20016년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친숙한 예술가들의 인생 여정과 작품세계를 영화로 만나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에곤 실레, 안토니오 로페즈 가르시아 등 친숙한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비비안 마이어, 세바스티안 살가두, 애니 레보

비츠 등 사진작가들도 조명한다.

특히 미술영화를 단순히 상영하는 방식을 탈피해 프로그램을 기획한 영화평론가 조대영 씨가 강연자로 나서 예술가와 영화의 이해를 돕는다.

3월26일에는 직업을 숨긴 채 15만장의 필름을 남긴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를 다룬 다큐멘터리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를 상영한다. 영화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진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비비안 마이어의 열정을 흥미롭게 담았다.

4월30일에는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 연출한 '빈센트와 테오'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영화는 빈센트 반 고흐와 미술품 중개상으로 경제적 후원자가 되어준 동생 테오의 이야기를 담았다.

5월28일에는 사진작가 세바스티안 살가두의 경이로운 삶을 담은 '제네시스: 세상의 소금'을 만날 수 있다. 세바스티안 살가두는 가난, 질병, 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발로 뛰었던 사진작가다.

이밖에 에곤 실레(6월25일), 폴 고갱(8월27일), 애니 레보비츠(9월24일), 안토니오 로페즈 가르시아(10월29일)를 차례로 만나볼 수 있다.

하정웅 미술관의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선착순이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예술영화 감상회를 통해 미술의 언어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구현되는



지를 느끼면서 영화와 미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향유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술과 영화에 관심 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4. 12. 도서관의 날, 곡성어린이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독서문화 행사 개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다가오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과 곡성어린이도서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곡성어린이도서관은 2024년 4월 12일 개관 이후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문화를 읽는 도서관' 공연, 실감형 동화체험 등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작년 약 9개월 동안 지역 주민 및 관광객 2만 8천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곡성의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푼다"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주제에 맞춰,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고자 도서관 스탬프투어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이 더욱 재미있게 도서관을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

당일 주요 행사로는 ▲2024 볼로냐 가치상 수상 그림책 '호랑뽕뽕'의 서현 작가와의 만남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클래식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공연 ▲'물감이 흐르는 케이크' 플로잉아트 공동작품 만들기 ▲'4차원 공룡세계 탈출 대작전' VR 체험 ▲도란도란 토론 심기 등 다양한 독



서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도서관 마당에서는 ▲오징어게임 속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야외 도서관, 책책책책 책버스도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도서관 구석구석을 체험하면서 도서관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독서-토론-작가와의 만남이 연계된 순천 어린이 독서회 운영

4월~7월까지 사춘기 성장 소설, 우주탐사 교양 과학 등 다양한 책과 만나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시립도서관 5개관(삼산, 연향, 기적, 조례호수, 신대)에서 (2025년 상반기 순천 어린이 독서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처음 시작한 (순천 어린이 독서회)는 초등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독서 프로그램으로 매월 한 권의 주제 도서를 가지고 각 도서관에서 독서-토론 수업을 한 후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

한다. 이번 모집하는 상반기 프로그램은 아동문학뿐만 아니라 평행우주를 다룬 SF 소설, 우주 과학 도서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주제 도서를 선정했다.

4월 첫 주제 도서는 '제13회 정재봉 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최인정 작가의 '열세살의 트라이앵글'로 자신만의 세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를 맞이하는 어

린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장 소설을 함께 읽고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2025년 상반기 (순천 어린이 독서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적의도서관(061-749-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양중마도서관, 도서 대출 서비스 '맞춤형 책 꾸러미' 운영

초등 교과 연계·역사 특화 도서 등 제공, 독서문화 활성화 기대

광양중마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맞춤형 책 꾸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연령과 주제별로 구성된 꾸러미형 도서대출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 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책 꾸러미 서비스는 초등학생은 '책꿈치', 중학생은 '독서중', 성인은 '책바구니'라는 꾸러미명으로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교과연계도서, 역사 추천 도서 등 5권의 추천 도서를 한 꾸러미로 구성하여 총 40꾸러미를 상시 비치하고 시민들이 도서관 방문해 목록을 확인하고 1개월간 대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대상으로는 추천 그림책 30권을 대출해주는 그림책 수레 '아미'를 운영한다. '아미'는 순우리말로 친한 친구



를 뜻하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는 우수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객원 예술감독 임오섭)이 오는 4월 1일까지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은 예향 남도의 명성을 이어갈 차세대 국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남지역 초·중등학교 재학생이며, 모집 분야는 장악부, 기악부(가야금), 무용부, 사물부 등 4개 부서다.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신규단원 모집한다

4월 1일까지 초·중학생 대상... 장악·기악·무용·사물 분야

서류 접수는 오는 4월 1일까지며, 전남도립국악단 누리집(www.jpg.or.kr)을 통해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실기 전형은 4월 5일 무안 소재 남도소리울터에서 진행되며, 각 지원 분야의 전형 과제 심사와

개별면접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단원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한다. 전남도의 지원으로 매주 토요일 운영되는 주말 교육 및 하계 합동연습 참여,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출연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전혜경 기자

임오섭 객원 예술감독은 "함께 땀 흘리며 작품을 일궈내고,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경험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아이들에게 꼭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단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국악단 누리집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혜경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